

# 業界소식

## 2燈用 40W안정기 개발

□ (株) 光明電機 □

燈器具 전문업체인 光明電機는 래피드식 2燈用 40W 안정기를 개발했다.

同社가 개발한 2燈用 형광등 안정기는 2개의 램프 중 하나만 점등해도 램프 하나에 걸리는 소비 전력만 소모, 실질적인 절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同製品은 또 래피드식 안정기에 비해 전력 손실이 적어 20%의 절전이 가능하다.

또한 2燈用이지만 램프 하나만 점등하면 싱글 안정기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 종래 직렬방식 안정기의 결점을 보완했다.

특히 일반안정기가 55%의 저역률인데 비해 同製品은 92% 고역률이 발생, 무효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電子通信研究所 龜尾 半導체 설비 낙찰

□ 金星半導体(株) □

지난 2년여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韓國電子通信研究所(ETRI) 구미 반도체 시설이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지명 공개입찰에서 141억 5,000만원에 응찰한 金星半導체에 최종 낙찰되었다.

IBRD 차관 2,900만불 및 內資 100억원 등 內外資 330억원을 투입하여 설립된 이 공장은 그동안 64K ROM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가는 등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해 오다가 同 연구소를 大德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미시설과 건물 등을 민간기업에 이양키로 결정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82년 2월 大宇그룹에 299억원에 낙찰되었으나 30억원의 인수계약금을 지불해 놓고

도 인수조건이 맞지않아 증도금 불이행사태 (84년 9월)가 빚어져 결국 계약이 취소되었다.

이후 한동안 매각 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同연구소와 인접해있는 金星半導체가 단독 인수하려 했고 매맞춰 그룹적 차원으로 반도체 투자 필요성을 재천명하고 나선 大宇측이 계약금까지 건너간 입장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 아래 팽팽히 맞서오다가 이번에 최종 낙찰을 보게 되었다.

## 國産 컬러TV 스웨덴 輸出

□ (株) 金星社 □

金星社は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웨덴의 SEMKO 규격을 획득한 뒤 이를 계기로 스웨덴측과 1만대의 컬러TV 수출 계약을 맺었다.

同社は 이로써 컬러TV를 비롯한 VTR·전자 렌지·오디오 등 10억불 규모의 수요를 갖고 있는 북유럽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PAL 방식의 VTR가 북유럽 4개국의 공동 안전규격인 SEMKO 마크를 획득한 뒤 이 지역의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 작년 중 각종제품 2,000만불 어치를 내보냈으나 금년 중 이를 3,000만불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同社は 올해부터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화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1월 11일 런던에 새로 지사를 두었다.

## CTC시스템 사업 확대

□ 金星通信(株) □

金星通信은 지난달 IBRD 차관 사업인 경부선 열차 집중제어장치(CTC 시스템) 및 중앙선 전철화 국제입찰에 성공 철도 및 전철 운용의 자동화에 기여함은 물론 韓電에서 입찰한 大田 전력 집중제어

장치 사업도 수주, 전력설비 운영의 극대화 및 경비절감에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同社は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CTC의 90% 국산화 달성을 비롯, 기존 SCADA 시스템의 성능 향상, 운용효율 제고 등을 높이고자 지난 84년 6월부터 韓電 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지난 85년말 현재 시스템 기능 및 운영체제 분석, 경보기록 개선 프로그램 등 1, 2단계를 성공리에 끝냈으며 부수적으로 20만불 상당의 외화 절감효과를 올렸으며 3단계인 고장구간 진단 등 계통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 베타식 VTR 첫 수출

□ 大宇電子(株) □

大宇電子는 국내 처음으로 유럽지역에 베타방식 VTR 수출에 성공, 이 지역 시장개척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同社は 최근 터키에 연간 5만대분의 VTR을 수출키로 계약을 맺고 지난달 17일 1차분 4,000대를 선적한데 이어 같은 PAL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네델란드·인도네시아 등과도 베타방식 VTR 수출상담을 활발히 진행, 곧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同社가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한 VTR는 베타 PAL 방식의 프론트 로딩형으로 8배속 화면 탐색 및 놓의 배속 느린 동작, Auto Rewind, 동시 녹화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최신 제품이다.

## 네팔에 컬러TV 600대 輸出

□ 럭키金星商事(株) □

럭키金星商事는 네팔 정부가 실시한 PAL 방식의 컬러TV 국제입찰에서 日本의 소니·도시바 등 선진국 업체들을 제치고 이를 따냈다.

同社は 해외의 유명 브랜드 제품만 전시·판매하고 있는 네팔시장에 자체의 金星 브랜드를 사용한 완제품을 내보냈다.

네팔은 금년중 컬러TV의 시험방송에 이어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방영할 예정이어서 시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美 마이크로 파이프社에 資本 참여

□ 三星電子(株) □

三星電子는 수출 유망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컴퓨터 기술개발을 앞당겨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달 27일 美國 컴퓨터 전문회사인 마이크로 파이프社와 자본금 95억불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크로 파이프社는 77년에 설립된 벤처비즈니스 형태의 회사로 35명의 고도 전문인력을 보유, IBM 컴퓨터보다 3배 정도 성능이 우수한 IBMAT 호환기종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기술로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同社は 이번 투자로 컴퓨터 기술제고 외에도 독자개발시 소요되는 로열티·개발비·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경비절감과 오는 88년까지 450억원의 OEM 수출로 수출 증대, 마이크로 파이프社 관련기업으로부터 기술협력 및 신속한 현지 정보입수 등의 다양한 성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 컬러 TV 브라운관 生産 확대

□ 오리온電氣(株) □

오리온電氣는 올해 컬러TV 브라운관의 생산시설을 늘리고 VTR용 자기헤드를 새로 생산할 계획이다.

同社は 147억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컬러 TV 브라운관 생산능력을 지금까지의 월간 15만대에서 20만대로 늘리는 증설공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同社は 또 5억원을 들여 VTR용 자기헤드의 생산설비도 갖추어 7월부터 이의 생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 편향코일 등 輸出 好調

□ 韓國電氣音響(株) □

韓國電氣音響은 지난해 1,500万弗 어치에 이르는 이들 전자부품을 美國 등 세계 각국에 수출, 지난

84년보다 20%가 늘어난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올해의 경우 이보다 33%가 늘어난 2,000万弗의 목표를 세우고 東南亞, 印度, 유럽 등지의 새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同社는 요즘 들어 설비투자를 늘려 생산 능력을 연산 1,000만대 규모로 넓혔다. 또 기술력 향상을 겨냥, 해마다 7,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10여명의 기술자를 日本 등지로 연수시키고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량률을 낮추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

## LAN 시스템 설치

韓國電子計算(株)

韓國電子計算은 사무자동화를 위해 1,000여명의 건물에 LAN 시스템을 설치, 모든 OA기기를 공유하면서 음성·메이터·영상 등을 얹은 자리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同社는 美國 코빅스社에서 LAN 시스템을 도입, 2월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이것이 설치 완료되면 이 회사에 설치된 컴퓨터, 150대의 터미널·전화기·팩시밀리 등을 하나의 교환망으로 연결하게 된다.

---

## 실리콘 고무 2種 UL규격 획득

(株) 海龍실리콘

海龍실리콘은 최근 美國 UL본부로부터 실리콘 고무 2種에 대한 UL규격 합격통보를 받았다.

실리콘 고무의 UL규격(UL94-0)은 산업소재 전 품목에 대한 화재안전성 규격으로서 美國 현지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정용품 전기기기·건축재료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同社는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서 생산하게 된 실리콘 고무 2種(HR5020, HR7020)에 대한 UL규격을 획득함으로써 현재까지 日本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물량을 국산 대체케 되었다.

현재 국내 컬러TV, 오디오제품, 가정용 주방기기, 사무용품 등 연간 실리콘 고무 수요는 100ton에 달하는데 이번 海龍실리콘의 UL획득으로 연간

70만불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 디스크 드라이브 事業 참여

現代電子産業(株)

現代電子産業은 자본금 200万弗 규모의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美텐던社子會社인 싱가포르 텐던社와 50대50으로 합작 투자, 지난달 20일 現代마그네틱스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現代마그네틱스는 연간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를 10만대씩 생산, 150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생산공장은 利川에 있는 現代電子 공장의 일부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장가동 초기에는 내수 위주의 주문 생산에 주력하고 해외시장의 동향을 고려, 수출시장도 적극 개척할 방침이다.

한편 現代마그네틱스 社長에는 鄭夢憲 現代電子 社長이 겸임하기로 했다.

---

## 住所 및 變更事項 안내

國際通信工業(株)

- 변경일: 1985년 11월 30일
- 변경후 대표자: 金永驥
- 변경전 대표자: 白 星 三

三和電機(株)

- 변경일: 1986년 1월 13일
- 변경후 대표자: 徐 匣 洙

東仁貿易(株)

- 변경일: 1986년 1월 14일
- 변경후 상호: 東仁貿易(株)
- 변경전 상호: 東仁交易商社

(株)리몽드

- 변경일: 1986년 1월 24일
- 변경후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15-1

□ (株)精明工業社

- 변경일: 1986년 1월 16일
- 변경후 대표자: 崔 馬 俊
- 변경전 대표자: 김 성 호

□ 泰石精密(株)

- 변경일: 1986년 1월 17일
- 변경후 대표자: 張 東
- 변경전 대표자: 김 동 혁

□ 韓光通信(株)

- 변경일: 1986년 1월 22일
- 변경후 대표자: 정 정 근
- 변경전 대표자: 정 덕 기
- 변경후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 1동 134-94

□ (株)世進音響

- 변경일: 1986년 1월 27일
- 변경후 주소: 인천시 북구 가좌동 537-4(한국수출 산업공단 제 5단지)

□ (株)액튼컴퓨터

- 변경일: 1986년 1월 29일
- 변경후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63-1 (삼창빌딩 9층)

□ (株)映電交易

- 변경일: 1986년 2월 4일
- 변경후 주소: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170-14
- 변경후 전화번호: (032) 62-8554

